"연주는 언제나 할머니의 자랑입니다."

- 부모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연주(가명)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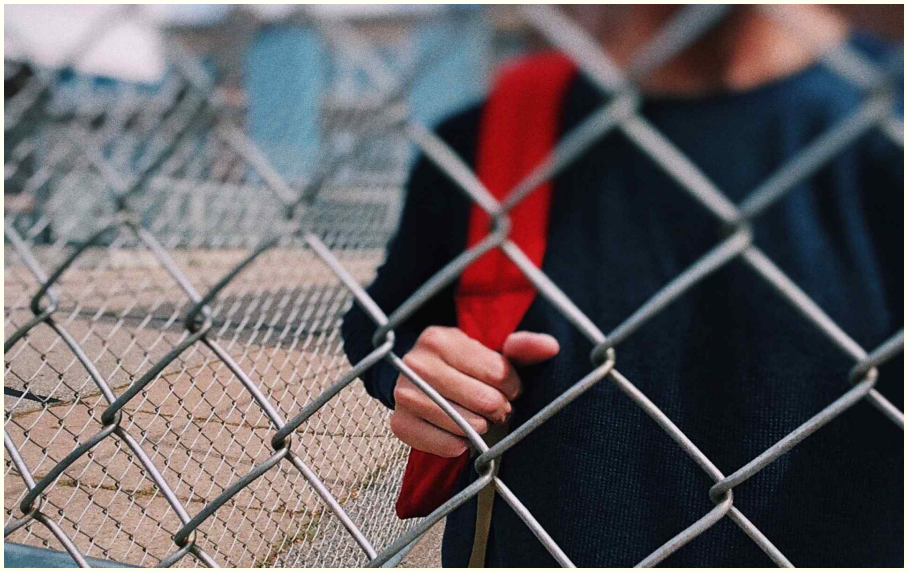
이제 17살이 된 연주(가명)는 엄마, 아빠 얼굴을 모릅니다. 연주의 어머니는 연주가 3살, 동생이 1살일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연주가 5살 때 두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연주에게 할머니는 엄마이고, 아빠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지체장애가 있는 고모와 어린 손주들을 돌보느라 나날이 늙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연주는 늘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환경에서 사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똑똑하고 성실한 연주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할머니의 짐을 덜어 드리고 싶어 의사의 꿈을 버리고 취업이 잘 되는 특성화고에 들어갔습니다. 연주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인재들만 모인 학교로 40: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 없이도 바르고 똑똑하게 자란 연주가 너무나 이쁘고 기특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매일 연주 자랑을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쁜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란 연주가 학비 대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연주의 학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